

보도시점

2026. 7. 13.(월) 17:00

배포

2026. 7. 13.(월)

카페업계 등 탈플라스틱 실천에 참여

-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 23개 업계 등과 협약 체결, 전국 2만 2천여개 매장 동참
- 다회용컵 할인,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시 매장에 따라 최대 800원 혜택 누려
- 빨대 등 일회용품 별도 주문을 통해 고객도 탈플라스틱 실천 참여 유도
- 협약 이후에도 희망 매장은 참여 가능, 이행 매장 지속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 업계와 ‘탈플라스틱 실천문화 확산 협약식’을 서울새활용플라자(서울 성동구 소재)에서 7월 13일 오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추진계획’에 따라, 탈플라스틱 사회 전환에 앞장서고, 실천 문화 확산을 약속하는 카페업계 등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23개 업계 대표*, 개인 매장을 대표하는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등이 참석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매장 기준으로는 23개 업체와 150여 곳의 개인 매장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2만 2천여 곳에 이른다.

* 커피전문점: 달콤, 더벤티, 던킨, 베스킨라빈스, 스타벅스, 이디야, 엔제리너스, 하삼동커피, 할리스, 크리스피크림도넛,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텐퍼센트커피, 파스쿠찌, 폴바셋, 뽕다방 (16개)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케이에프씨, 파파이스 (5개)

제과점 :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2개)

협약에 참여하는 매장은 △매장내 다회용컵 사용, △개인컵(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가격 할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참여 노력 등을 통해 플라스틱을 줄여나간다.

이에 따라, 고객이 개인컵(텀블러)을 가져오면 가격할인 및 탄소중립 포인트(300원)를 통해 매장에 따라 최대 800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플라스틱과 금속을 서로 분리되기 어렵도록 결합해 재활용체계를 교란하는 용기(PET캔 등)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일회용컵을 컵홀더로 사용하여 이중으로 겹쳐진 컵에 음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원절약을 실천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매장에서는 빨대 등이 필요할 경우 무인주문기(키오스크) 또는 점원에게 별도 주문하는 경우에만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고객들이 탈플라스틱 생활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참여 매장에는 탈플라스틱 실천 노력에 동참하는 매장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인컵 할인매장 표지’를 부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은 협약 이후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열린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방법은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네이버 카페(cafe.naver.com/coffeeowner)에 가입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협약이행 성과를 분석하여 일회용품 사용 감량 및 다회용컵 전환을 위한 정책 설계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매장별 탈플라스틱 세부 실천 전략을 수립하여 9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카페 처럼 일상 공간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이번 카페업계와의 협약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사업장, 놀이공원, 스포츠경기장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업계, 시민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협약식 개최 계획.
2. 협약식 참여 업체.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1-7340)
		담당자	사무관	배진욱 (044-201-7352)

□ 추진배경

- 카페업계 등*과 협약을 통해 탈플라스틱 실천 문화 확산 유도

* 맥도날드, 파라바게트 등 23개사와 既체결한 협약('24.1월)을 강화·갱신 + 신규업체 추가

□ 협약식 개요

- (일시) 2026. 7. 13.(월). 17:00~17:36

- (장소) 서울 새활용플라자內 꿈꾸는 공장*(서울 성동구 소재)

* 새활용(업사이클링) 기업이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시제품 개발·제작하는 실험실

- (참석자) 장관, 협약업체*, 카페사장협동조합, 자원순환사회연대 등

* (기존) 23개 업체 → (금번) 23개 업체(탈플2개소, 신규2개소) + 개인매장 참여(150여개소)

- (주요내용) 기존 협약내용에 △다회용컵 사용 확대, △일회용 빨대 사용 자제, △재활용 저해하는 용기 사용 자제 등 반영

- ① 탄소중립포인트를 연계하여 개인컵 할인제 촉진
- ② 빨대 등 일회용품을 키오스크로 주문 또는 고객이 요청시에만 제공
- ③ 매장內종이컵 및 매장外캔시머·이중컵 사용 자제
- ④ 협약기간(3년) 설정,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 세부일정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7:00 ~ 17:05	'5	• 개회(개회 선언 및 내빈 소개)	사회자 : 이재경 주무관
17:05 ~ 17:08	'3	• 인사말씀	장관
17:08 ~ 17:13	'5	• 협약내용 설명	사회자
17:13 ~ 17:28	'15	• 업계 의견 청취	참석자 전원
17:28 ~ 17:30	'2	• 협약서 서명	참석자 전원
17:30 ~ 17:31	'1	• 이 동	참석자 전원
17:31 ~ 17:36	'5	• 단체사진 촬영	참석자 전원

※ 텀블러 지참, 행사장에서 커피 제공

붙임2
협약식 참여 업체

구분	사업자	업종	비고
1	파리바게뜨	제과제빵	-
2	이디야 커피	커피	-
3	스타벅스 커피	커피	-
4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빙수	-
5	빽다방	커피	-
6	투썸플레이스	커피	-
7	뚜레쥬르	제과제빵	-
8	롯데리아	패스트푸드	-
9	더벤티	커피	-
10	던킨/던킨도너츠	제과제빵	-
11	버거킹	패스트푸드	-
12	할리스	커피	-
13	파스쿠찌	커피	-
14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
15	엔제리너스	커피	-
16	탐앤탐스커피	커피	-
17	KFC	패스트푸드	-
18	폴바셋	커피	-
19	크리스피크림	제과제빵	-
20	달콤	커피	-
21	파파이스	패스트푸드	-
22	텐퍼센트 커피	커피	신규
23	하삼동커피	커피	신규
24	개인매장	커피	신규 148개소*

* 서울 25, 경기 50, 부산 3, 대전 3, 대구 6, 광주 4, 울산 4, 인천, 12, 충북 4, 충남 8, 전북 5, 전남 4, 경북 9, 경남 8, 세종 2, 제주 1